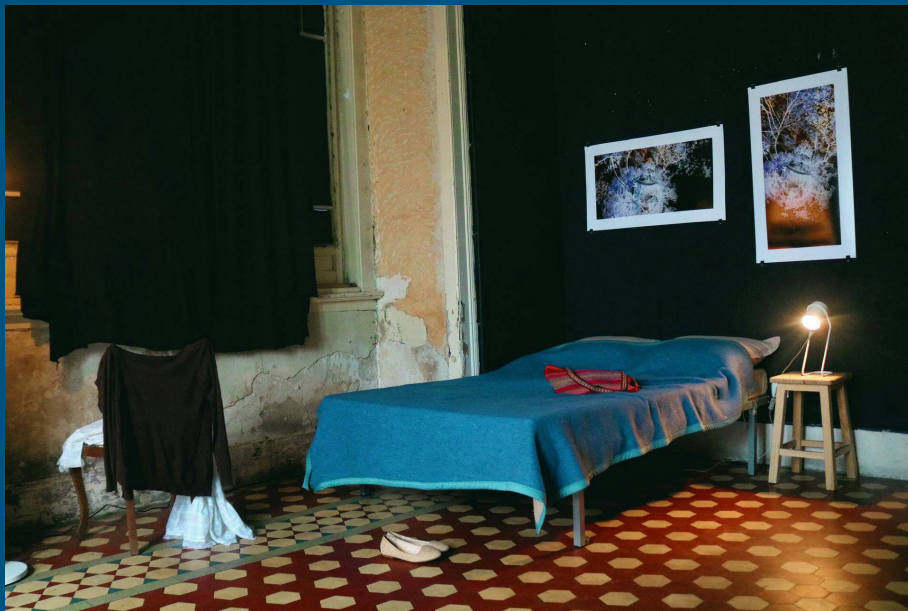




박성윤 Sungyun Park (Blond Jenny)

VIDEO ART

Green Beetle (2019)

Running Time: 3 min 20

남자, 여자 골드피쉬, 물, 나무 그리고 하늘은 한마리의 초록색 딱정벌레가 된다.

우리는 대자연에 둘러싸여있고 우리의 움직임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가된다.



VIDEO ART

The Guy Who Pulled The Earth Back (2020) 7 min 5 sec

한 남자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달린다.

그는 대자연의 수호신이다.

지구를 끌어당겨서 과거로 돌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되돌리려한다.

남자가 지구를 끌어 당기면 당길수록 거칠고
메마른 땅, 지구는 풀들이 무성한 초록으로
물들고 꽃들이 피어나며, 점차 대자연으로
가득해진다.

그가 마지막으로 지구를 끌어 당기자 지구의
반대편에 한국의 부여, 공남지로 가게 된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고, 연못의 다리를
건너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된다.



2022년 3월 Pexma 비디오 전시 Pier Contemporary 서울

MIXED MEDIA

My Earth

Size: 13 x 13

Material: egg shells, dried flower petals on canvas

세가지 컬러를 이 'Black & White' 프로젝트에 사용했다.

달걀 껍질을 삶과 죽음 그리고 black and white로 묘사한다.

달걀껍질의 바깥면을 black 으로 칠하고 안에 보이는 껍질을 그대로 하얗게 남겨놓고 White and black 부분은 yellow 꽃잎으로

연결시켜 대비감을 주었다. 둥근 캔버스 프레임은

나의 지구; 동네에 위치한 산에서 채취한 현지의 봄꽃,

매일먹는식사, 즉 나의 달걀껍질로 덮여 있다.

우리는 (Black, White, Yellow and more) 한 목소리를 만들어

하나가 되기위해 있다.



MIXED MEDIA

Break Glazed Bread

Size: 7x7x2 inches

Medium: rubber donuts, egg shells, and ceramic dish

Break Glazed Bread는 나의 평범한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바램; '나의 지구'의 연장된 작업이다.
아침식사는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기에 유기농솥,
화이트, 그리고 황금색으로 구워진 달걀을 현지농부에게서
구입해서 껍질을 깨고 장식을 했다.

이 특별한 도너츠를 모두와 함께하고자 하며
틀을 깨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MIXE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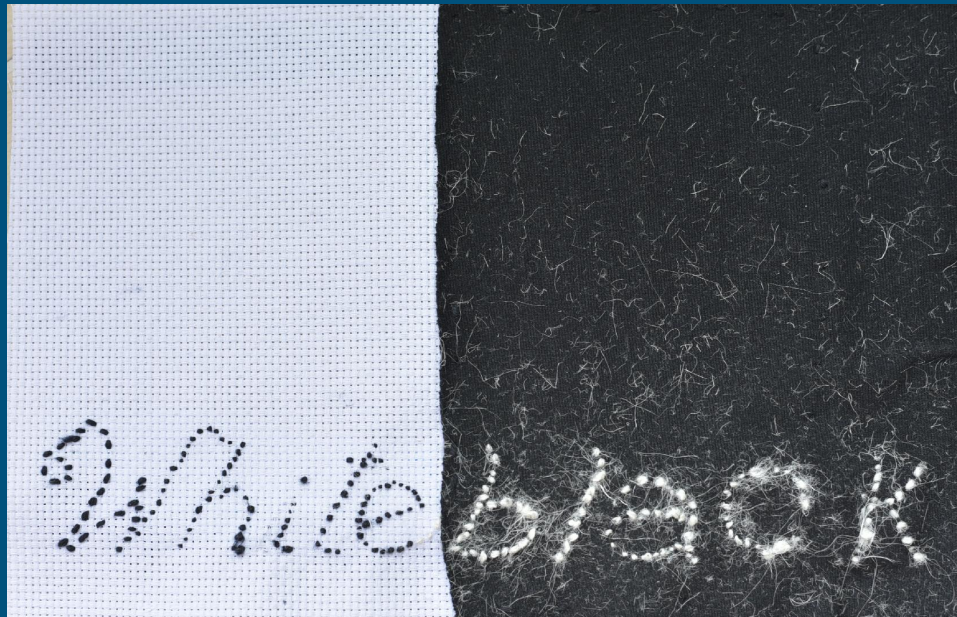
Whiteblack

Size: 7 x 10 inches

Medium: Matte board, cotton fabric, thread

나는 'Whiteblack' 이란 단어를 만들었고 그 의미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이다. 그안에는 싸움이 없고
단지 평화만 존재한다. 다름이 어떤 우위가 있는것이 아닌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해 대조를 사용했다.

글자들은 바닥에 배치되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무의식을
편하게 하는 깊은 숨을 쉬고 내뿜는 것과 같이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평화로 존재한다.



MIXED MEDIA

Sign of Woman (Calligraphy) ; San / Mountain (2020)

Size: 11.5 x 27 inches

Medium: Dried flower petals and gouache on oriental paper roll

‘과거와 현재의 꽃, 한글, 여성 그리고 자연’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 익숙한 것들에서 재발견을 하며, 그 과정을 다양한 매체로 담고 재해석해 본다. 여성성을 한글서예와 말린 꽃잎들로 표현한다. 동양적인 스타일의 복합재료에 초점을 두는데,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한 원동력이다. 꽃과 모국어의 편안함을 준다.

혀의 모양과 말할 때의 입 그리고 자연에 기본을 둔 상형문자인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MIXED MEDIA Yeo / Female (2020)

Size: 11.5 x 27 in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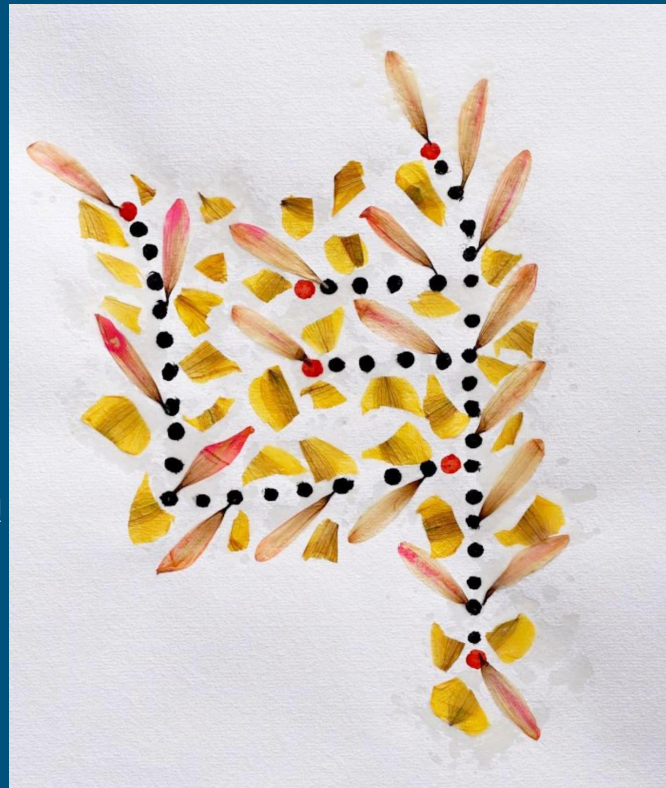
Medium: Dried flower petals and gouache on oriental paper roll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서 기본모음 ‘.’은 하늘 ‘ㅡ’은 땅
그리고 ‘ㅣ’은 사람이 그들사이에 서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형상들의 의미는 사람이 얼마나 자연과 함께함을 행복해 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동양적관점이다. 자연에게 겸손했던 사람이 만든 과학이 있기전의 과거로 간다.

환경에 경의를 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되기를 바란다.

한국어 단어와 소리들을 이용해 여성성을 묘사한다.



MIXED MEDIA Ddal / Daughter (2020)

Size: 11.5 x 27 inches

Medium: Dried flower petals and gouache on oriental paper roll

이 프로젝트 초기에는 한글서예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그것은 과거를 여행하는 것과 같았다. 점차 나를 참여시켜 좀더 모던화된 서예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칼리그래피 작업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이 음악과 같이 하나되는 것을 보여준다. 검은색과 빨간색 점, 그리고 꽃잎을 이용하는데 마치 노래가 적힌 음악악보 같다. 그것들은 한글, 색, 그리고 공간을 통해 음악을 만든다. 한글의 의미는 공기와 대자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PHOTOGRAPHY

Unseen Passage (2020)

Size: 11 X 17 in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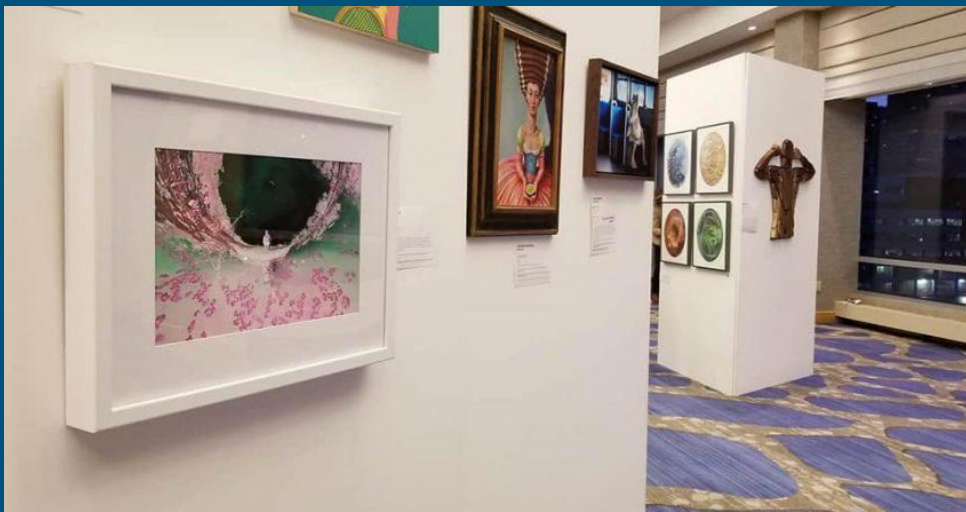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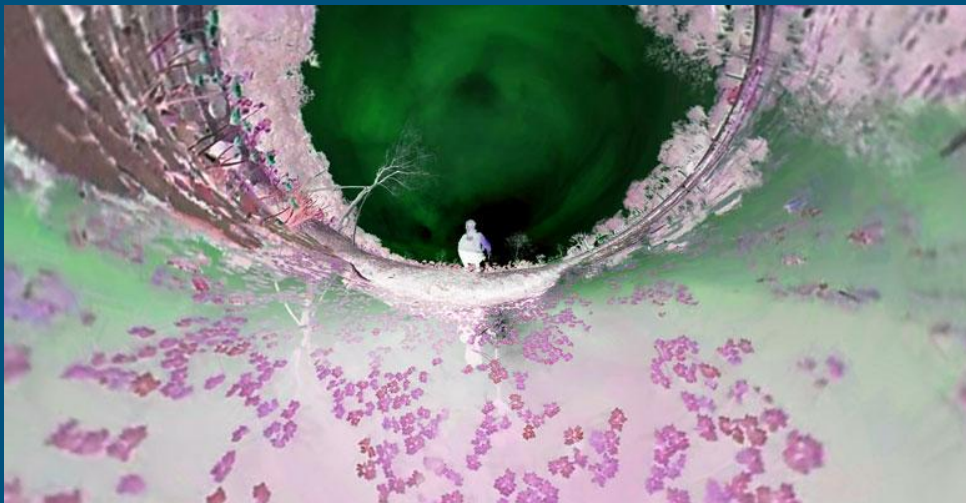
Medium: Archival Pigment Print

John Berger가 말했듯이 우리는 보는것만을 보려한다.

Negative 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못하는 에너지를
돌, 나뭇잎, 사람들을 노출하여 alternate dimension, 즉
평행우주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의 흐름을 통해
하나된 유동적인 이미지를 경험해볼수 있을것이다.

Negative 이미지는 다른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14C Art Fair, NJ, 2020 The Juried Show



PHOTOGRAPHY

The Road To Heaven #3 (2019)

Size: 20 x 30 inches

Medium: Archival Pigment Print



Lisbon 에서 열렸던
Fábrica Braço de Prata의
WOOLF ROOM 연극무대설치
Mariana Martins(배우)

